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한가위(순교자 성월)
제32권 43호(나해) 2012-9-30

[묵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이를
저희와 함께 하지 않는 이라는 이유로
못하게 막아버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느님 백성의 테두리를 크게 그리십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힘을 믿었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물 한 잔처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선의에서 나온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이들은
그들이 저희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 해도,
심지어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기에
하느님 백성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유혹을 참고 이겨낸 보람과 기쁨보다,
죄를 물리치기 위한 희생을 거부한 후회와
그로 인한 고통으로 일그러진 삶을 사는 이는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 하더라도
하느님 백성의 통 큰 테두리 안에도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제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제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제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제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제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제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말씀의 성사적 성격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느님 말씀의 성사적 성격은 바로 강
생에서 기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사람이(살
이) 되었다.”(요한 1,14). 계시된 신비의 실재는 아드님의 “살”
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말씀과 인간
적인 행위라는 “표징”을 통하여 지각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믿음은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말씀과 행위들을
받아들이므로써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러므로 계시의 성사적 지평은 하느님의 말씀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시어 믿음으로 당신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부름
받은 인간의 대화 상대가 되시는 역사적이고 구원적인 방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사적 성격은,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그리
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것과 유비적으로 이해할 수 있
습니다. 제대로 나아가 성찬의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예식 안에서 하느
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현존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신
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우리가 성찬
례와 하느님의 말씀에 다가갈 때에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이
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복음이 그리스
도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이 그분의 가르치심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요한 6,53)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
씀이(성찬의) 신비를 뜻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스
도의 몸과 그분의 피는 참으로 성경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가
르치심입니다.

우리가(성찬의) 신비에 다가갈 때 만일 그 한 조각이 떨어진
다면 우리는 마치 멸망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의 귀에 하느님의 말
씀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피가 부어질 때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험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겠습니까?”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실제적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례에서 선포된 말씀
안에도 현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말씀의 성사적 성격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서로 긴밀히 결합된 행적과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계시의 신비를 더 단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이로써 신자들의 영성생활과 교회의 사목
활동에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토 요	(연)최금옥 말지나
특전미사	(생)이아영 헬렌, 김관기 라파엘 & 김명재 아가다 가정, 홍병철 미카엘, 최조앤 가브리엘라
한가위 주 일	(연)앞서 가신 조상님들과 부모 형제들의 영혼을 기억하는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아침미사 낮 미사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요엘 예언서(Joel) 2,22-24.26-28

화답송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저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라.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제 2독서 요한묵시록(Revelation) 14,13-16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뿌릴 씨 들고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복 음 루카(Luke) 12,15-21

영성제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41	240	248
봉헌	361	248	270
성체	401	287	284
파견	기뻐하며 왕께	232	181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온갖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을 수확하며 하늘에 감사를 드리고 조상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이 축제는 모든 이에게 풍요로운 명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 들인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곡식을 수확하는 데 필요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갖가지 조건들을 채워주신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이 축제는 조물주 앞에 참으로 겸손한 우리 조상들의 신심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는 자신의 수확물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루어 낸 것인 양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워가며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이 잘된 것을 망각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기는 커녕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느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더 나아가 우리 생명 또한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연장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힘으로 되어가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특별히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드리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를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마련해주실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실패로 보일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좋은 계획이 있으니 우리는 늘 그분께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바오로 수도회 창립자이신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느님께 맡기는 기도’를 함께 봉헌해 봅시다.

하느님께 맡기는 기도

-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

“나의 하느님, 오늘 제게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저의 더 큰 선을 위하여 미리보고 마련하신 것 외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뿐이오나 그것으로 넉넉합니다.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을 받들고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를 따르며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희생제물에 합쳐 저의 온 존재를 당신께 제물로 바칩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공로에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비오니, 주님께서 원하시거나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과 저의 성화를 위하여 어려움 중에 참고 견디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성바오로수도회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매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김숙희 유소사제실리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송현식 바오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공지사항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주일학교 오픈 하우스

- 일정 : 오늘주일(30일) 초등부 1~5학년,
10월14일 중등부(6~8학년), 10월21일 고등부(9~12학년)
- 시간 : 주일학생미사 후 10시30분~11시30분(수업시간중)
- 장소 : 각학년 교실
- 대상 : 주일학교 학부모, 적극적인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한국학교주최 '한가위 한마당'

- 일시 : 한가위 주일(30일) 오후 1시30분~3시
- 행사내용 : 전통악기(가야금, 장구, 해금, 단소) 공연 및
전통음식(송편, 떡, 과일, 식혜 등) 나누기
- 일반교우들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협찬 : 배론청년회
- 문의 : 한국학교 교장 김화경 스텔라 ☎(310)464-7490

콜럼버스데이 연휴로 10월7일(주일) 수업 없습니다.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의 수업이 10월7일 주일에 없습니다.

주일학교 Lock-In

- 날짜 : 10월12/13일(금 오후 7:00~토 오전 9:00)
- 대상 : 6~12학년
- 장소 : 성당
- 준비물 : 슬리핑백, 세면도구, 목주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교사 ☎(310)613-9116

남가주 소식

제14회 미주가톨릭방송(KCBC) 성당대항 골프대회

- 일시 : 10월6일(토) 낮 12시, 샷건 플레이
- 장소 : 패사디나 브룩사이드 골프클럽
- 참가비 : \$100(그린피, 카트, 디너 포함)
- 문의(신청) : 미주가톨릭방송 (213)220-1245
정헨리 (213)500-3852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95주년 기념행사 및 미사

- 일시 : 10월13일(토) 오후 7시30분
- 장소 : 성 바실 성당(본당 : 637 킹슬리 Dr. LA)
- 미사집전 박대덕 스테파노 신부
- 주최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미주평의회
- 문의 : 주배석 비오(818)571-8438

4박5일 영신수련 침묵 피정

- 일시 : 10월17일(수)~21일(주일)
- 지도 : 배영길 신부(예수회)
- 참가비 : \$450(독방) * 마감 10월10일
- 주최 : 한인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KCLC)
- 장소 : 매리우드 피정센터
- 문의 : 전아네스 (213)507-1144 하세실리아 (323)578-2230

노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노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배태임 안나 781-9199 10/13/(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막달레나, 욕울리아 539-3377 10/13(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0/12(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김주량 요한 989-0366 10/2(화) 오후 7시 <u>반미사</u>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이명렬 라파엘 749-0276 10/23(화) 오후 7시 <u>반미사</u>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10/17(수)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1	오창애 안나 974-2857	임순 데레사 974-2857 10/1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경수 헬레나 634-6923 10/11(수) 오전 11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10/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10/13(토)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이병우 마리노 784-0585 10/9(화) 오후 7시 <u>반미사</u>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0/21(주일) 낮 12시 성당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482-9108 10/12(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10/12(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김인숙 안젤라 617-3568 10/9(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오전 7시30분, 오전 11시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말과 생각과 행위의 삼위일체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세유럽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손꼽히는 성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원래는 하나의 몸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인 '삼위일체(三位一體)'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신비를 밝히려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변을 산책하다가 한 어린이가 모랫구멍에서 조개껍데기로 물을 푸는 모습을 보고 성인이 '무엇을 하고있느냐'고 묻자 어린이는 '바닷물을 퍼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닷물을 퍼서 뭘 하려 하는데.'하고다시 묻자 어린이는 대답했습니다. '바닷물을 퍼서 바다를 텅 비게 하려고요.'

어린이의 대답에서 성인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밝히는 것은 조개껍데기로 물을 퍼서 바다를 비우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의 말씀처럼 삼위일체의 신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숨겨진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습니다.'(창세 1,26,27) 하느님께서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신 것은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된 것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요한 1,1)라는 요한의 증언처럼 전능하신 '말씀'으로서의 하느님과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요한1,14)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행동'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다."(요한 16,13)라는 성령으로서의 '생각'이 깃들여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삼위(聖三位)이시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말과 행동과 생각'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처음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을 때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된 완전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이후 인간의 역사는 살인, 음란, 우상숭배, 도둑질, 파괴 등 각종

범죄로 얼룩지게 되었으며 일치되었던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점점 분열되고 유리되어 참인간으로서 원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마태 5,48)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완전한 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느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라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필립 3,13-14)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바오로는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달음 질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불드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필립 3,12)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불드신 목적은 제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 달음질치게하려는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안에 있는 하느님으로서의 '말씀(言)' 능력과 예수님으로서의 '행동(行)' 능력과 성령으로서의 '생각(知)' 능력 즉, 「지언행(知言行)」을 일치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렌즈로 햇별을 모아 초점(焦點)을 맞추면 불꽃이 일어나 종이를 태울 수 있듯이 분열된 제 생각과 말과 행위를 오직 '사랑'의 초점으로 집중되어 불타오르게 하소서. 저의 말이 곧 저의 생각이며, 저의 생각이 곧 저의 행동이며, 저의 행동이 저의 말입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멘.

◆최인호 베드로 / 작가<서울대교구 주보자료>

너무 쉬운 비결

아무리 불행하다해도 날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모든 것 다 갖추고 산다고 해도 매 순간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매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사람이 있고 불행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행복이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이의 비결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